

육계자조금

2010. 11

자조금소식 2010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실시

외교 '육계농가',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 나는 길 농가 간 연대강화...

닭요리 닭완자 채소전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Korea Poultry Board

육계농가 여러분! 자조금을 통해 육계농가의 위상을 드높입니다!

육계농가 여러분!

육계자조금은 계열 주체가 아닌 육계농가가 주인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전국 육계인들의 의지를 담아 역사적인 육계의무자조금이 출범하였습니다. 육계자조금 사업은 우리 육계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육계산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국내 육계산업의 계열화로 인해 초래된 계열사와 농가간의 불평등한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평등한 수평관계로의 재정립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자조금은 다시 농가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자질향상을 위해 육계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육계산업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건의하며, 여기에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조금이 많이 거출될수록 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결집된 힘을 보여줄 자조금 납부에 적극 동참합시다!

30여년간 진행된 계열화 사업을 통해 우리 농가들은 계열업체의 횡포와 부당한 대우에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열업체의 소작농으로 전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육계농가들이 하나로 뭉쳐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조금은 육계농가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조금 납부에 동참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첩경입니다. 아무쪼록 자조금 납부에 적극 동참합시다.

자조금을 통해 FTA 등의 난관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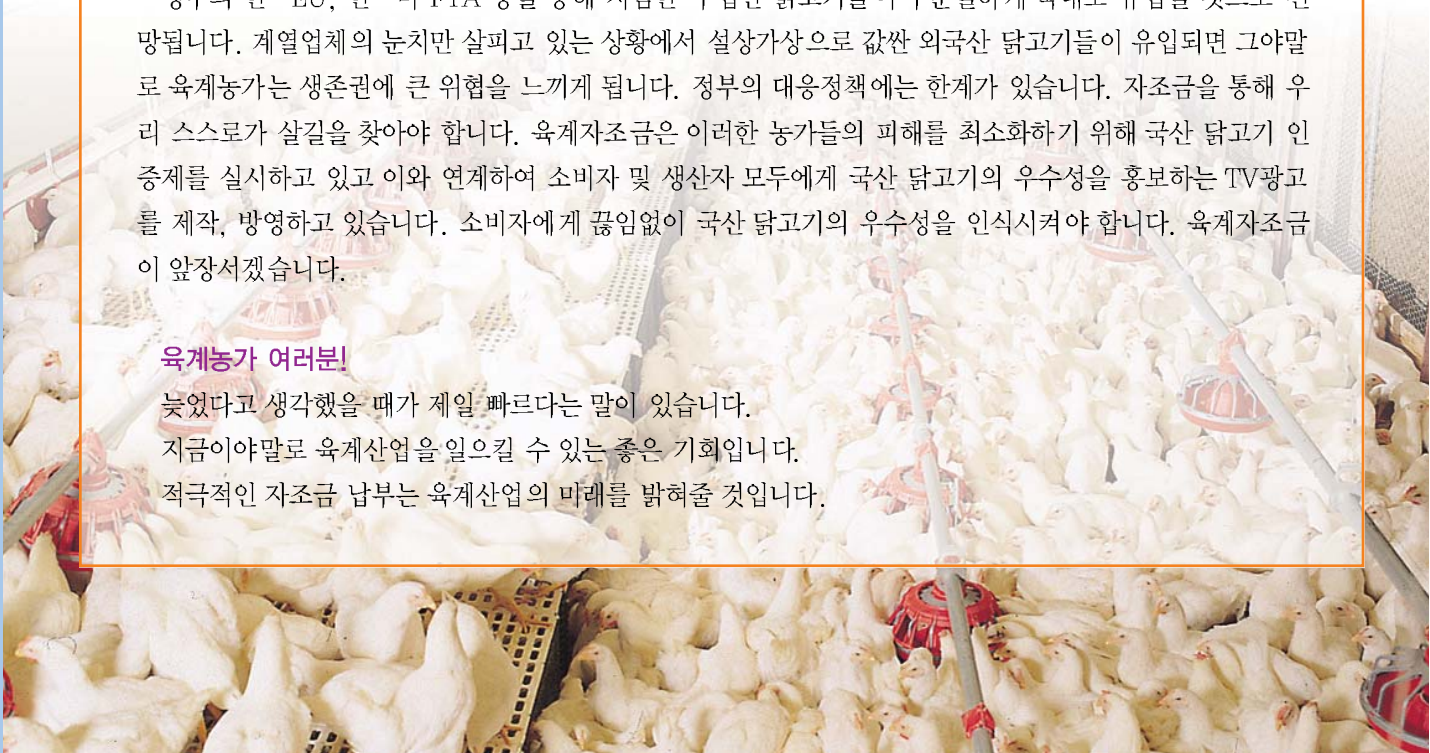
정부의 한·EU, 한·미 FTA 등을 통해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열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값싼 외국산 닭고기들이 유입되면 그야말로 육계농가는 생존권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정부의 대응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조금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육계자조금은 이러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산 닭고기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 모두에게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TV광고를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육계자조금이 앞장서겠습니다.

육계농가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육계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자조금 납부는 육계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병아리 이력제 도입 추진 위해 선진지 시찰 나서

2차 관리위, 2011년도 사업계획(안)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기로

국내 '병아리 이력제' 도입을 위해 육계 선진국인 스웨덴과 벨기에 시찰이 추진될 예정이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지난 11월 22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2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병아리 이력제 도입을 위한 선진국 시찰을 의결했다. 또한 육계사 전기안전점검, 육계농가 해외연수 등 새물계 사업이 추가된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을 제1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농가의 의견수렴 부족과 관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기 관리위원회에서 재의결기로 결정했다. 차기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1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의결에 앞서 지난 3월 12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던 2010년도 제1차 관리위원회 의사록에 대해 보고 발표가 있었고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육계자조금 조성 및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부의안건 제2호 육계자조금 활성화 방안에서는 농가들이 자조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거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관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다음호 육계자조금소식지부터 자조금 거출 실적을 정리해 신기로 하였다. 또한 계열업체에서 자조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3호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예비비 집행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번 예비비 집행건은 스웨덴, 벨기에 등 육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아리 이력제와 관련된 산업 전반을 참관코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육계자조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전용하기 위해 상정된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계육협회의 한도매정 승인이 지연된 관계로 육계자조금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하여 이준동 위원장은 한국계육협회의 육계자조금 축산단체 및 관리위원회의 의원 해촉의 건을 긴급 상정하였다. 의결결과 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관리위원 중 의결권이 없는 2명의 감사를 제외하고 총 9명 중 7명이 해촉에 대한 찬성의견을 보여 계육협회의 해촉이 승인되었다. 이에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2010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실시

11월 17일부터 전국 13개 도시에서 개최

육계산업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이 실시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남원, 김제 등 전북지역 육계인들을 대상으로 '2010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23~24일 전남, 25~26일 경기, 29~30일에는 경상도 지역 등 지금까지 총 9개 도시에서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은 앞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충남, 7일 충북, 10일 제주에서의 교육 등 4번의 교육을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13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교육은 정부의 양계(질병 및 방역)관련 정책과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양계산업의 안정화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의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17일 남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첫 번째 교육에서는 남원, 장수,

순창 등의 지역에서 40여명에 가까운 육계농가들이 참석하여 이번 순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일에는 김제 농업기술센터에서 45명의 육계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교육이 진행되었고, 19일에는 정읍 농업기술센터에서 40명이 넘는 육계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의 마지막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양계관련 정책 및 추진계획에 대한 강의와 양계관련 전문가들이 육계질병 및 방역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육계자조금에 대한 홍보와 거출 향상 방안, 내년에 설립 예정인 육계조합,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이홍재 부회장은 "자조금은 여러분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자조금을 통해 현재 계열업체에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며 교육생들에게 자조금 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0년도 제2차 '전문육계 CEO과정' 교육 실시

대한양계협회, 경북 칠곡서 2박 3일간 합숙교육

2010년도 '전문육계 CEO과정' 1차 교육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자 이에 대한 추가 교육을 농가들이 요구해 2차 교육을 실시했다.

2차 교육은 2박3일간 집중교육형태로 합숙교육이 이뤄졌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북 칠곡에 위치해 있는 영진산업인력개발원에서 전국 각지의 육계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문육계 CEO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2박3일간의 합숙형태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지난 홍성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CEO과정 교육은 육계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양기술 및 유통마케팅, 경영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교육 등을 진행해 육계농가들이 생산자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생산과 유통, 마케팅을 총 망라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23일에 진행된 첫날 교육에서는 대한제당 홍성철 마케팅 팀장의 '육계산업의 중장기적 전망분석' 과 (주)계흥 유재석 대표의 '육계사양관리' 에 대한 강의를 이루어졌다. 이어 네오마이오의 오향 차장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육계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증제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교육 둘째 날인 24일에는 '계열화산업의 개선방안 모색' 이란 주제로 대한양계협회 이흥재 부회장의 강의를 진행되었고, 농식품부의 변동주 사무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계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육계농가들이 농장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무, 회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으로 임기완 회계사의 '양계경영 세무교육' 이 이어지고 농가의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질병에 관해서는 반석가금연구소의 손영호 소장의 '양계질병 진단 및 관리방안' 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이번 합숙교육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인근에 있는 '대구 농협사료' 를 견학해 사료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교육에 참가한 모든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번 CEO과정 교육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CEO과정 교육동안 참가생들은 짜임새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며 2박3일간의 일정이 너무 짧다는 것에 아쉬워하고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 더욱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추운 겨울, 국산 닭고기 먹고 건강하게 나세요!” 대한양계협회, 지역축제로 국산 닭고기 소비 홍보 활동 전개

“추운 겨울 국산 닭고기 먹고 건강하게 나세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겨울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에서도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에 참가해 ‘닭고기 먹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관람객들이 국산 닭고기를 먹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무료 시식회를 가졌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닭고기 먹는 날’ 행사는 각 지역의 육계지부와 연계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에게 육계농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교감을 나눔으로써 닭고기 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한양계협회 파주육계지부와 연계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파주 임진각광장에서 열린 ‘2010 파주장단콩축제’에 참가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국산 닭고기 무료시식회를 갖고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대한양계협회 대구경북 도지회는 지난 11월 11일 ‘2010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가해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으며, 남원육계지부는 지난 11월 7일에 열린 ‘2010 남원시 춘향골 축제’에서 관람객들에게 국산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무료로 나눠주고 고양육계지부도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고양시 농어민의 날’ 행사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닭고기 무료시식회의 일환으로 관람객들에게 닭갈비를 나눠주고 국산 닭고기를 이용한 가공 훈제제품 시식회 및 소비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구미육계지부에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경북 구미 화훼단지에서 열린 ‘제3회 억만송이 구미낙동강 국화축제’에 참가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무항생제로 키운 국산 닭고기 · 계란 무료시식회를 진행하며 닭고기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했다. 🍗

“농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조금 사업이 되길”

“병아리나 닭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질병 등과 같이 농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조금이 되길 바랍니다”

경북 청송에서 4만수 규모의 부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용웅 대표. 그는 육계계열화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난 30여년 이상을 닭을 키워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계열화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개인위탁사육을 하고 있지만 몇 년까지만 해도 하림, 키토랑 등과 같은 계열업체와 거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평가, 표준계약서, 사료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금은 개인 유통업자와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금의 계열화 사업에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계열업체들이 농가와의 약속으로 정한 계약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업체들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약서

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꾼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농가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농가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자조금 사업을 통해 계열사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조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장 대표는 농가들이 자조금 납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병아리나 닭에게 일어나는 질병처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농가들이 자조금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용웅 대표는 정부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대형 닭고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지만 그에 앞서 대형 닭을 생산할 수 있는 사양관리와 도계장 등 주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1.5kg의 닭을 키웠을 경우 시세가 1천 500원, 2kg의 닭을 키웠을 경우 시세가 1천 400원이 가도 생산성면에서는 대형 닭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수익은 높아지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닭을 생산하기에는 저리할 도계장의 수도 부족하고 제반 여건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육계자조금사무국에 바라는 점으로 농가들과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가 더욱 많아져 농가들에게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줘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조금의 거출률이 더욱 높아져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병아리나 닭에게 일어나는 질병처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농가들이 자조금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적극 동참할 것”



경북 청송 부곡농장 장용웅 대표

'육계농가',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 나는 길 농가 간 연대강화 그리고 자조금 사업 동참



김기윤
축산경제신문 회장

2006년까지 이른바 빅4(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체제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육계시장이 하림의 잇따른 중견 계열업체 인수합병과 물량 확대에 따라 하림+3(마니커, 체리부로, 동우)체제로 변화했다.

각 계열주체의 자금여력 등을 고려해 하림+3의 과점 체제로 시장의 안정이 전망됐던 닭고기부문에 체리부로의 호남진출 선언과 이지바이오 그룹의 닭고기 사업 진출로 인해 시장은 다극화하고 계열주체 간 무한 경쟁체제로 다시 돌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부화 +사육 +도계라는 일반적인 계열화 도식에서 사료를 확보하지 못한 계열주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각 계열주체들이 사료 인프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화 +사육 +도계 사업에 주력했던 체리부호가 2개의 사료공장을 확보했고 동우도 기존 공장을 체리부로에 매각하고 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하림의 경우 그룹 내 사료 자회사와 함께 하림 자체 사료공장(신명 인수)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사료부분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이지바이오 그룹의 성화 인수 등 닭 계열화 사업

진출은 향후 중소계열사 인수 확보 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계열주체들이 규모화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닭고기 계열주체들의 몸집 불리기와 판도변화는 육계농가들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농가는 상대적으로 많고 계열주체는 규모화되고 과점화 되면서 최근 육계사육농가들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위상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육계시장이 안정기에서 다시 경쟁체제로 변화할 경우 생산을 책임지는 농가들의 희소성으로 농가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계열주체들의 러브콜에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농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있다. 앞으로 있을 계열주체 간 무한경쟁 속에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다니다 보면 또다시 안정기가 도래했을 때 농가들의 상황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를 대비한 농가들의 강한 결속과 연대를 통해 시장의 변화 시기에 농가들의 거래교섭력을 더욱 높이고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농가들은 나서야 할 것이다. 농가들의 거래 교섭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





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농가들이 마련해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농가들은 계열화 추진 초기에는 사육 인센티브나 선도금 등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였고 계열주체들이 피 말리는 점유율 경쟁, 판매 경쟁으로 육계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이들 싸움에 휘말려 사육수수료 한 푼 올려 받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다. 육계시장의 혼란기를 틈타 현재 추진되는 육계조합을 통한 거래 등 신 거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축종과 달리 협동조합이 아닌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현재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사안을 개별 농가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여러 농가들이 연대해 이러한 업무를 지도자들에게 위임하고 이들 지도자들은 각계 전문가들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생산자들이 중심이 된 양계협회와 같은 생산자단체나 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이들 생산자 단체가 이러한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농가들이 십시일반 거출해 마련한 자조금일 것이다. 문제는 현재 농가연대도 자조금조성도 부진하다는 데 있다. 그나마 최근 몇몇 농가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어느 정도 농가 연대를 이끌어 내고 있지만 농가들 중심의 자조금 사업은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자조금 산업이 농가 주관에서 산업이 주관하는 자조금 사업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더 이상 자조금이 농가들만을 위해 쓰여지기는 어렵게 되어 있어 부진한 거출 실적 못지 않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농가 중심의 자조금사업과 산업이 주관되는 자조금사업의 차이는 농가들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인 계열주체나 부화, 사료,

유통 등이 자조금 사업에 모두 참여해 일정 지분을 출연하고 그들의 입장도 대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앞에서 생산자들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연구와 교육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다른 주체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의 경우 폐기될 수도 있다. 자조금사업이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만들어 내고 농가들을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육계시장에서 농가들은 다시 들러리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지난 4월 전북 남원에서 개최된 육계인 대회에서 1천명이 훌쩍 넘는 육계농가들이 참석해 자조금 납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육계농가들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 상에서 육계 농가들은 희망이 없다며 자조금을 통해 농가들의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는 육계 지도자들의 제안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자조금 거출 실적은 미미하고 자조금 거출 동력은 수납기관인 계열주체들의 비협조와 농가들의 무관심 속에 현재 상실된 상황이다.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농가 중심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자조금을 더 잘 거출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열주체들이 자조금 사업 주관자가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혹은 수직계열화라는 현 체제에서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년 간 주도권을 빼앗기고 육계산업 중심에서 노동자로 전락해 버린 상황을 타개하는 일은 농가들의 연대와 자조활동 밖에는 없다는 것을 농가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에도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들이 육계산업의 중심으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부터 해나가야 한다. 첫 번째가 생산자들의 연대 활동이고 두 번째가 연대활동을 든든히 지원할 수 있는 자조금 사업 동참일 것이다. 🍀



추위를 녹여주는 국물이 있는 닭고기 요리

닭완자 채소전골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도 전인 11월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올해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 국물이 있는 닭고기 요리로 추위에 지친 몸을 달래보자. 🍲

닭완자 채소전골

| 재료 |

닭 1마리, 두부 1/3모, 배추잎 6장, 시금치 70g, 숙주 70g, 계란 2개, 팽이버섯 1/2봉지, 당근 1/4개, 썬갓 50g, 당면 50g, 간장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씩, **두부양념**(소금, 참기름, 깨소금, 후추), **닭고기 양념**(간장 2큰술, 후추 약간, 다진파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생강즙 1작은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2큰술, 소금)

| 만들기 |

- ❶ 닭은 깨끗이 손질하여 냉수에 닭가 핏물을 빼고 뼈를 발라준다. 닭뼈는 물 6컵을 붓고 파, 미늘, 양파, 생강을 조금씩 넣어 1시간 정도 푹 고아면 보에 발친 다음 국 간장,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다.
- ❷ 발라낸 닭고기는 껍질을 벗겨 곱게 다져 갖은 양념을 하고 두부는 면보에 싸 물기를 꼭 짰 후 으깨어 깨소금, 소금, 참기름, 후추로 양념한다.
- ❸ ❷의 닭고기, 두부를 혼합한 후 치대어 반죽하여 직경 3cm크기로 둥글게 만들어 밀가루, 계란 손으로 묻혀 팬에 기름을 약간 넣고 뜨거워지면 완자를 굴러 가면서 지진다.
- ❹ 끓는 물에 데친 배추를 김발위에 엇갈리게 펴고 시금치를 놓아 말아 2cm 길이로 자른다.
- ❺ 계란을 풀어 소금으로 간하여 끓는 물에 넣는다. 익으면 체에 받쳐 김발에 둥그렇게 싸 식으면 2cm길이를 썬다.
- ❻ 숙주, 팽이버섯은 뿌리쪽을 자르고 당근은 화형으로 찌어놓고 썬갓은 6cm로 자르고 양파는 채 썬다. 당면은 물에 불려 놓는다.
- ❼ 전골냄비에 양파를 깔고 그 위에 고명을 얹고 중앙에 닭고기 완자를 돌려 담은 다음 ❶의 국물을 부어 전골을 끓이다가 썬갓, 불린 당면을 다시 한번 끓인다.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닭고기

리놀렌산과 불포화지방산 풍부해 효과 만점

40~50대 이상 성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심장질환은 대표적인 성인병 중의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심근경색,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질환의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옛날에 비해 육류 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의 26년여에 걸친 실험결과, 적색육과 같은 고기, 고지방 유제품을 하루 2차례 먹는 여성은 0.5차례 먹는 여성에 비해 관상동맥과 같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평균 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불리는 닭고기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심장질환 발생률을 높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이다.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원인

동맥경화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은 체내 혈관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고 이는 결국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적색육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져 이와 같은 심장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

따라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해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닭고기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지방의 함량은 낮아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불린다. 여기에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은 16%이상으로 육류 중 가장 높다고 한다.

특히 필수지방산의 한 종류인 리놀렌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닭고기에는 이 리놀렌산이 약 15.9% 함유되어 있어 다른 육류에 비해 리놀렌산 함유율이 높은 편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리놀렌산 함량은 9.5~9.7%, 쇠고기의 경우 2.6~3.7%에 불과해 닭고기 섭취는 돼지고기나 쇠고기 섭취에 비해 심장질환의 발생위험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한 닭고기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잘 녹지 않고 지나치게 되면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질환의 발병위험을 높이지만 체내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불포화지방산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어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닭고기는 오리고기와 더불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손꼽힌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57%, 쇠고기는 59%인데 반해 닭고기의 경우 67~68%정도로 다른 육류에 비해 10%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심장학회나 세계암연구 재단은 심장질환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적색육 대신 닭고기와 같은 백색육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2012년까지 병아리 이력체계 구축

'한·EU FTA 보완 대책' 따라...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정부는 한·EU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양계산업에 순차적으로 331억원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한·EU FTA 보완 대책-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중심'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 보완 대책' 중 양계산업 분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의 경우 덴마크 등 EU에서의 냉동 닭다리 무관세 수입과 생산비 차이 등을 감안했을 때 수입개방 15년차에는 331억원의 생산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산성 14% 향상을 목표로 한 보완 대책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EU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근절,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닭(2.5kg 이상) 생산, 지열 활용, LED 점등 체계 구축, 부산물 사료 이용 등으로 생산비를 20% 절감토록 하고, 도계가공시설의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 신뢰구축 및 수출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검사질병 대상도 추백리, 가금티프스에서 마이코프라스마(MG, MS), 전염성 빈혈, 뇌척수염,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검사결과 양성발생 시 계군 이동제한, 종계사용금지, 부화 및 농가공급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 방역관리요령을 오는 2011년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병아리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 22일 종계·부화장에서 병아리 공급시 계통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2012년에는 종계·부화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병아리가 사육되는 축사별로 병아리를 생산한 종계·부화장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병아리 이력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문 종계장 육성 등을 통해 우수 병아리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에는 종계장의 종합평가제를 실시하고 우수 종계장(육성사 포함)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녀, 전문 원종계장(GPS)에 대한 시설현대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2~2013년에는 종계 능력 검정소를 청정지

냉동 닭다리	2009년	→	2021년
관세	20%		0%
EU산(A)	2,530원/kg		2,141원/kg
국내산(B)	3,431원/kg		3,431원/kg
가격차(B/A)	168%		202%

구분	한국(2009)	EU(2009)	격차
생산비(2008)	1,742 원/kg	1,698원/kg(덴마크)	108%
사료요구율	1.6~1.7	1.5~1.6(덴마크)	
평균 출하 체중	1.47kg	2.22(영국)	0.75kg
가격차(B/A)	8.6kg	20.7(영국)	232%

정부는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위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성 향상 - 질병근절, 병아리 이력제 실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먼저 오는 2016년까지 난계대전염병과 뉴캐슬병을 근절토록 했다. 이를 위해 종계·부화장, 삼계용 씨알농장(600개소)에 대해 연 2회 일제조사하고,

역으로 이전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기후에 적합한 종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닭(2.5kg 이상) 생산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대형닭 생산을 위해 암수를 분리하여 암컷은 현행 출하시기에 출하(38일, 1.5kg)하고, 수컷은 사육기간을 연장하여 대형닭으로 생산(47일, 2.5kg 이상)해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 지열 난방시스템 등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위생·안전 - 동물복지 인증제, 도계시설 현대화 지원

위생·안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1년에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자연방사 등)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타 축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복지형 산란계 인증기준 개발은 올 8월에 마련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평가할 계획이다. 또 축사환경 평가기준,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농장 HACCP 기준, 무항생제·유기 축산물 인증 기준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도계시설 현대화 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교차오염 방지, 신선도 유지(2℃이하), 풍미개선 등을 위해 도계시설 냉각 시스템을 냉수에서 냉기로 개선할 예정이며 자동화 포장시설(별크진공, 개별) 설치를 지원(용자 70%, 3%, 3/7)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닭고기 수출작업장의 민간인 도축검사원을 지자체 공무원 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지난 8월부터 배달용 치킨까지도 확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EU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근절,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닭(2.5kg 이상) 생산, 지열 활용, LED 점등 체계 구축, 부산물 사료 이용 등으로 생산비를 20% 절감토록 하고, 도계가공시설의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 신뢰구축 및 수출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가축 계열화사업 제도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계열화사업이 사육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간에 상호 신뢰부족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가칭)’을 오는 2011~2012년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률은 가축계열화사업 개념 정의, 가축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및 표준사육계약서 제도 도입, 계열사별 농가협의회 및 분쟁 조정기구 설치 의무화,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권리·의무 사항 규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닭고기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국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닭고기 외식업체 및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농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